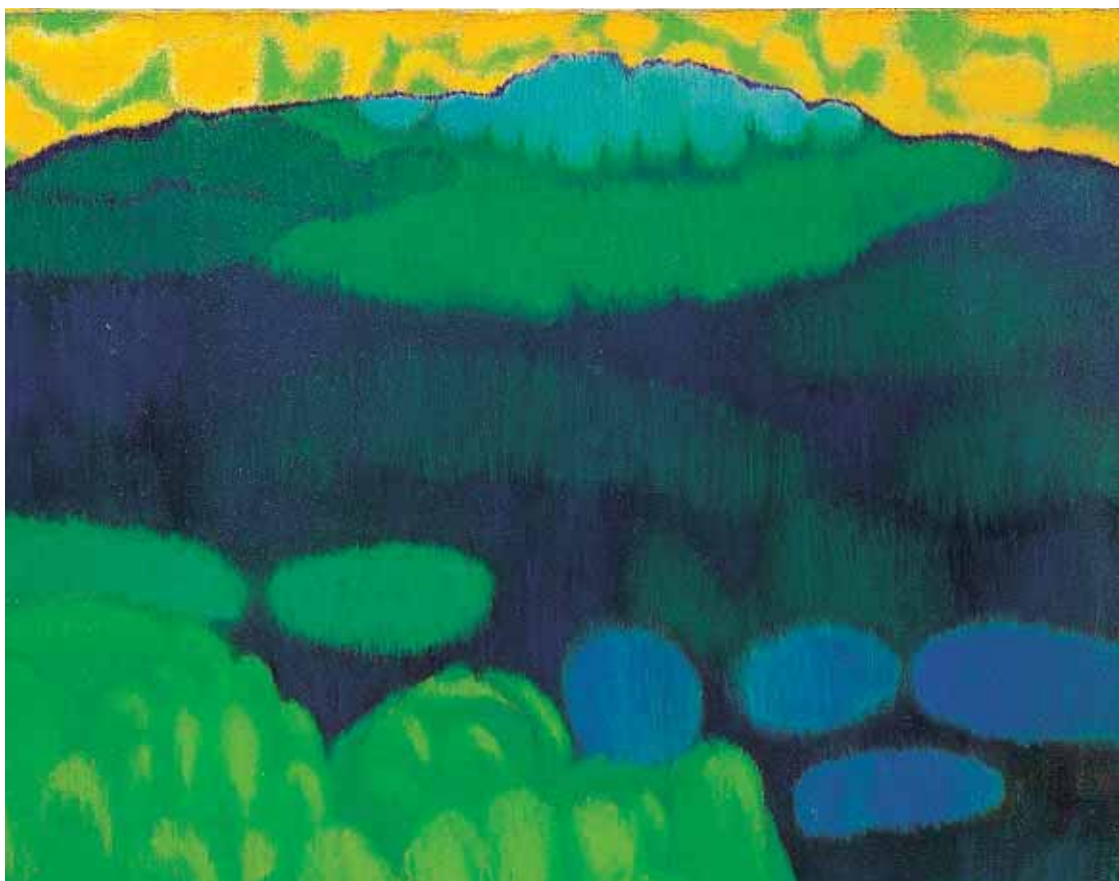


“영혼도 화풍도 자유로웠던 화단의 선각자”



살아생전의 진양옥 화백과 아들 진시영.



‘무등산’

제자 김익모 교수·아들 진시영 작가 故진양옥 회고전 ‘꿈에도 바람이 분다’

70년대 파격 추상기법 도입

조선대 미대 설립도 주도

대담미술관 8월 1일까지

유화·수채화 등 30여점 전시

진 작가 아버지 추모 작품도



‘섬마을’

“그는 시대를 앞서 간 선구자였어요. 인상주의와 사실주의가 화단을 지배했던 시기에 과감하게 추상기법을 도입했어요. 주위 눈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예술세계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틀을 다지신 분이죠.”

조선대 미술대학은 지난 1980년 서울대와 함께 국내 최초로 생긴 미술 단과대학이다. 조선대 미술대학이 생기기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고(故) 진양옥(1932~1984) 초대 학장이다. 대학건물 1층에 설치된 ‘우리 대학을 빛낸 인물’에는 김보현, 천경자, 오지호에 이어 4번째로 이름을 걸며 그를 기리고 있다.

지난 1984년 52세 나이에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수많은 후학을 길러냈다. 그중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이 제자 김익모 교수와 아들 진시영 미디어아티스트다.

오는 8월1일까지 대담미술관에서 진행되는 진양옥 회고전 ‘꿈에도 바람이 분다’전을 앞두고 조선대 미술대학에서 지난 6일 김 교수와 진 작가를 만나 작품세계에 대해 들어봤다.

추상작업을 주로 하는 김 교수는 “대학원 시절 구상회화를 넘어선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은데 당시 화단은 보수적이라 쉽지 않았다”며 “진 교수님을 찾아가 하소연하니 그 자리에서 성심어려 하동철 교수에게 진필편지를 써주시며 서울 유학 기회를 마련해주셨다”고 떠올렸다.

하동철 교수는 진 교수가 1978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Pennsylvania Academy of the Fine Arts’에 연구교수로 1년간 초빙됐을 때 동료였다.

김 교수는 이어 “진 교수님 덕분에 추상화를 마음껏 배울 수 있었고 지금까지 교수 생활을 이어올 수 있었다”며 “평소 거친 인상이었지만 솔도 많이 사주시고 미래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주는 따뜻한 분이셨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진 교수 작품 세계에 대해 “미국에 있을 때 추상기법을 시도하시며 비약적으로 작품이 발전하셨다”며 “지금 생각해보면 전통회화에서 현대미술로 넘어가는 단계까지 이룩하셨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당시 오지호 화백과 임직순 화백으로 이어지는 인상주의 바탕 사실주의 화풍에서 진 교수는 탈피했다고 분석했다. 초기작들은 스승 오 화백처럼 자연풍경을 빨강, 초록, 노랑 등 아름다운 색채로 담아냈다. 점점 본인 색을 갖추기 시작한 시기는 1960년대 후반부터다. 원근법을 무시하고 단순화시키는 기법을 사용하며 자신만의 방법으로 사물 본질을 연구한다.

정점에 이른 건 귀국 후였다. 유작 ‘무등산’(1984)을 살펴보면 극도로 자연을 단순화한 모습이 보인다. 붓이 아닌 스펀지를 사용해 면과 색채를 그리며 자연 걸모습이 아닌 숲의 정기와 분위기까지 담아내려고 시도했다.

김 교수는 “당시 보수적이었던 화단에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기법”이라며 “진 교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원하는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를 항상 보장해주셨다”고 말했다. 이는 김 교수가 지금까지 지켜온 교육철학이기도 하다.

중학교 2학년때 아버지를 떠나보낸 진 작가는 “무척 엄하신 분이셨다”고 기억했다. “전북 남원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난 아버지는 초등학교 때 무작정 광주로 와 힘들게 대학교수까지 되신 분이죠. 지금 제 작품 세계 밑바탕엔 아버지 기질이 깔려 있어요. 미디어아트를 하면서 본능적으로 화려한 색깔에 심취하고 있고 항상 새로운 걸 시도하려 노력하죠. 서양화를 전공해서인지 미디어작품에도 회화기법을 많이 도입하고 단순히 화려함보다는 아버지처럼 정성성이 가미된 작품을 보여주기 위해 애쓰고 있어요.”

‘꿈에도 바람이 분다’전은 진양옥 작품세계를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전시다. 유화, 드로잉, 수채화 등 작품 1960년대부터 1984년 작품까지 30여점을 전시한다.

또 진시영 작가가 제작한 영상 작품도 선보인다. 진 교수 사진과 작품이 어우러진 영상으로, 진 작가가 아버지에게 보내는 추모 작품이다.

김 교수는 “진 교수는 조선대와 지역 출신으로서 독자적인 예술 영역을 구축한 첫번째 인물이다”며 “예술가로서, 또 교육자로서 새롭게 조명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의 061-381-0082.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서재숙 작 ‘끝없는 고통’

‘생애 그 너머’...삶과 죽음의 본질을 묻다

문화예술 모임 ‘하람’ 전시회...11일까지 갤러리D

지역 문화예술 애호가 모임 ‘하람’(대표 서재숙)이 9일부터 11일까지 갤러리D에서 ‘생애 그 너머’ 전시를 연다.

전시는 회화, 사진,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장르로 삶에 대한 인식을 죽음과 연결시켜 세 가지 주제로 담아낸다. 인생이라는 험악한 여정에 대해 보여주는 ‘삶의 여정’, 산 자와 죽은 자의 엄숙한 상례를 보여주는 ‘생과 사’, 생명의 원천이자 영원한 무형의 실체인 영혼의 세계를 표현한 ‘죽음 후’이다.

‘하람’은 전시와 함께 관객들이 모형관에 들어가보는 ‘관 체험’과 ‘버킷리스트 작성하기’ 등 다양한 관객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문의 062-222-801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그림도 진행하며 주제를 폭넓게 이해시킬 예정이다.

박애순 작가는 성경 구절을 인용한 회화 ‘천국과 지옥 두 갈래의 길’을 출품한다. 기독교 세계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표현했다. 김인해 작가 작품 ‘심판’은 종교 교리에 나오는 사후 심판 모습이 소재다. 명왕 7명에게 심판을 받고 악인들은 지옥으로, 선인들은 환생하는 장면을 그렸다.

미디어 아트 ‘사자의 서’는 이집트의 사자의 서를 바탕으로 삶과 죽음에 대한 이집트 내세관이 담겨있다. 문의 062-222-801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김현승시인기념사업회 새회장에 수필가 장정식씨

다행 김현승시인기념사업회는 8일 남동 춘추관에서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대 회장에 수필가이며 유네스코 광주·전남협회 회장을 역임한 장정식씨를 선임했다.

다행의 제자들과 역대 광주문인협회 회장을 지낸 문인들로 구성된 기념사업회 운영위원회는 장 수필가를 만장일치로 새 회장에 추대했다.

초대 회장이었던 손광은 시인에 이어 2대 회장에 선임된 장 수필가는 다형 생가 복원 및 다형기념관 건립을 비롯해 기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다.

장 회장은 “올해 사업으로 다형 일대기를 그린 동화책 ‘대추씨 아저씨’(가칭)



출간과 6·25 전쟁 기간 중 다형이 주관해 발간했던 ‘신문학’의 영인본 발간에 힘을 쏟을 예정”이라며 “기존에 진행돼 왔던 다형문학축제도 차질 없이 치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2009년 기념사업회를 꾸려 다형문학전집 발간과 탄생 100주년표지석 건립, 일대기 영상물 제작 등 많은 사업을 전개해왔던 전담 명예교수 손광은 시인의 노고에 대한 치하도 있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명물 박물관 탄생!!
세계 70여개국에서 수집한 조각·장식 6,000여점 전시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World Sculpture·Ornament Museum

☎(062) 222-0072, 226-5800 일요일 휴관
(구, 카톨릭센터 뒤 금남문선 1층)

아프리카 소나조각 앙코르 전시회
400여점 전시

6 호남예술제 새싹그리기 축제

접수기간 2016. 6. 7(화) ~ 6. 10(금)

개요 | 작품 공모

- 대상 : 전국 초등학교 미취학 어린이
- 시상 : 우수상, 금상, 은상, 동상, 입선
- 결과발표 : 2016년 6월 23일(목)
- 호남예술제 홈페이지(http://art.kjmedia.co.kr)에 발표
- 작품크기 : 8절(개인 용지 사용가능)
- 주제 : 제한 없음

참가

- 참가비 : 7,000원(20명 이상 단체할인 4,000원)
- 접수처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금남로 27가) 광주일보사 문화사업국 새싹 그리기축제 담당자 앞

유의사항

- 출품된 모든 작품의 판권 및 저작권은 광주일보사에 귀속되며 반환하지 않음.
- 우편접수 시 작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포장상태에 유의하시기 바람.
- 본인의 작품이 아니거나 심사대상에 결격사유가 인정될 시 심사에 제외됨.
- 공지내역 외 사항은 일반적인 대회요강에 준함.

문의
062-220-0541 http://art.kjmedia.co.kr

주최 **광주일보 · (사)아시아문화**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목포시** **나주시**